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영혼의식이 되어라. 나는 몸이 아닌 영혼이다. 이것이 제1과다. 모든 이에게 이 과를 아주 잘 가르쳐라.

질문: 지식을 전하는 길이 무엇이나?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설명해야겠느냐?

대답: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지극한 행복으로 지식의 내용들을 말해라. 함께 앉아서 너희들끼리 지식을 토의해라. 지식을 되새긴 다음에 남들에게 들려주어라. 만일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고 그 다음에 영혼들에게 지식을 들려준다면 너희의 말을 듣는 이들도 역시 행복할 것이다.

움 산티. 아버지가 말하는데, 영혼을 의식하며 여기 앉아 있으면서 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의식하지 마라, 왜냐하면 좋고 나쁜 산스카르들을 기록해서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영향 받는 것은 영혼이다. 불순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영혼이다. “불순한 영혼”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 확실하고, 영혼이 몸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맨 먼저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여기에 앉아라”라고 한다. 너희 자신을 몸이라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영혼이라 여기며 여기에 앉아라. 이 기관들이 기능하게 만드는 것은 영혼이다. 되풀이해서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김으로써 너희는 지고의 영혼을 기억할 것이다. 만일 너희의 몸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가 말하는데, 영혼의식이 되어라. 아버지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제1과다. 영혼인 너희들은 불멸하고, 육신은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영혼이다”라는 제1과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약해진다. 지금 이때에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나는 몸이 아닌 영혼이다”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전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너희를 영혼의식으로 만들고 지식을 주려고 아버지가 왔다. 그가 주는 첫 번째 지식은 ”오 영혼들아, 이것이 낡은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순하다”라는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전시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질문들을 하므로, 낮 동안에 너희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함께 만나서 누가 무슨 질문을 했고 너희가 뭘 설명해주었는지 서로 소식을 물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라. 모든 이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다. 주된 것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는가, 몸이라고 여기는가? 이다. 모든 이에게 틀림없이 아버지가 두 분 있다. 모든 육신의 존재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팔로킥 아버지도 있다. 한정적인 아버지는 혼하다. 여기서 너희는 무한한 아버지를 찾았다. 그가 여기 앉아서 우리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한 분만이 아버지, 선생, 구루다. 너희들은 이를 아주 확고히 해야 한다. 너희들은 남들에게 설명해주는 이들과 함께 앉아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토의해야 한다. 영리한 자들도 역시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너희들은 낮 동안 시간이 있다. 식사를 금방 했다고 해서 졸리는 걸 느끼면 안 된다. 많이 먹는 자들은 식곤증으로 졸리고 게을러진다. 낮 동안에 너희는 “아무개가 이런 질문들을 했고, 나는 이런 답을 해주었다”라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양한 질문들을 하며 진정한 답을 원한다. 너희들이 그들을 때료시키고 만족시켜 주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너희는 바로잡아야 한다. 영리한 자들도 역시 함께 참석해야 한다. 방금 전에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가 곧 잠드는 것은 아니다. 신인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음식을 아주 적게 먹는다. 이런 이유로 ”행복만한 자양분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너희 자녀들은 지극한 행복을 느껴야 마땅하다. 브라민이 되는 데는 대단한 행복이 있다. 행복을 받으면 너희는 브라민이 된다. 신인들은 행복한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와 궁전들 등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아주 행복해하며 미묘한 음식을 극히 소량만 먹는다. 이것 역시 하나의 법이다. 많이 먹는 자들은 무척 졸린다. 잠에 대해 도취감을 느끼는 자들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할 것이다. 너희들은 대단히 행복해하며 지식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말해야 한다. 또 설명하기가 쉬울 것이다. 주된 것은 아버지를 소개하는 일이다. 아무도 브라마를 모른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어떠한 것인가? 너희들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미 설명했듯이, 나는 이 사람의 여러 생 중에서 마지막 생의 끝에, 그가 은퇴의 단계에 있을 때 그에게 들어온다. 달리 어디서 내가 수레를 얻겠느냐? 시브 바바를 위해서 이 수레가 기억되어 왔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수레에 들어오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진다. 수레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크리슈나의 수레일 수는 없으니, 그는 분명히 브라마를 통해서 설명했을 것이다. 그가 저 위에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라마가 어디서 왔느냐? 84생을 온전히 다 취한 이에게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람 자신도 이를 모르지만, 내가 그에게 말해준다. 크리슈나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다. 너희가 크리슈나에 대해 말하면 ”행운의 수레“, 바기라트에 대한 측면이 사라져버린다. 크리슈나는 바기라트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의 첫 생은 왕자의 생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속으로 지식의 대양을 되새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그러나 휘저어졌던 지식의 감로를 담고 있는 물동이가 락쉬미에게 주어졌던 것은 맞다. 그녀는 남들이 마시도록 감로를 주었고, 그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때였다. 그러나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지식의 대양을 휘저을 필요가 없다. 그는 씨앗이며, 내면에 지식을 지니고 있다. 오직 그만이 안다. 너희들도 역시 이것을 안다. 너희들은 이제 반드시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야 너희가 어찌 신인의 지위를 차지하겠느냐? 아버지는 너희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희 영혼들에게 설명한다. 나머지들 모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가 와서 설명하는데, 너희들의 닻은 이제 신봉의 길에서 들어 올려졌다. 너희들은 지금 지식의 길로 가고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식은 그 다음에는 사라진다. 그 분은 무체이고, 다른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아주 잘 설명되지만, 마야는 너희를 유인해서 흠먼지 속으로 밀어넣고, 그래서 너희가 불순해진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들아, 정욕의 장작더미 위에 앉음으로써 너희는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나중에는 여기에 틀림없이 천사들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반 사이클 동안은 천사들의 나라, 그 다음 반 사이클 동안은 무덤이 있다. 이제 모든 이가 다 묘지에 매장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다리의 그림도 역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불순한 왕국이며 틀림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은 묘지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변할 것이다, 즉 철시대의 세계가 황금시대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2도 줄어들 것이다. 원소들의 도수도 계속 줄고, 그러면 그것들이 격변을 일으킨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개껍데기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들에게 가치를 얘기한다. ”다이하몬드 같은 생“이 기억된다. 전에는 너희들도 아버지를 몰랐다. 너희는 빈 조개껍데기 같았다. 이제 아버지가 왔고 너희가 다이하몬드처럼 되게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다이하몬드 같은 생을 받는다. 그러니 어째서 너희가 조개껍데기처럼 되느냐?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다. 영혼들이 지고의 영혼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왔다는 것이 기억된다. 너희들이 평화의 나라에 있을 때는 그 만남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그저 순수성과 평화가 있는 장소에 불과하다. 여기서 너희는 몸에 들어있는 영혼들이고,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하나의 몸을 택해서 너희 자녀들을 가르친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고, 바바! 라고 한다. 아버지는, 오 애야! 라 한다.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가 “애들아, 이리 와, 톨리 줄게” 라 해도 모든 이가 재빨리 뛰어올 것이다. 이 아버지도 역시 “자녀들아, 오너라, 내가 너희를 낙원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마” 라 하고, 그러면 모든 이가 반드시 달려온다. 사람들은 소리쳐 부른다. 오셔서 불순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순수한 세계의 주인들,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어주소서.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를 불러온 것은 바로 자녀인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에 온다. 그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정화자라고 불리는 이는 아버지다. 갠지스 강의 물로는 너희가 순수해질 수 없다. 너희들은 반 사이클 동안 잘못 이해하면서 계속 움직여왔다. 너희들은 신을 찾고 있었지만 너희들 중 무엇 하나라도 이해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말한다. 오 자녀들아! 라고. 그러니 너희 자녀들도 역시 그런 열정으로 말해야 한다. 오 바바! 라고. 그러나 그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영혼의식이 아닌 육체의식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지금 직접 아버지 앞에 앉아 있다. 무한한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틀림없이 무한한 주권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런 아버지를 대해야 마땅하다. 너희들이 초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왔다. 드라마에 따라서 이것은 단 1분도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없다. 모든 이가, 오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라고 말한다. 저희들 모두 라반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내자가 되소서! 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안내자도 된다. 모든 이가 소리쳐 그를 부른다. 오 해방자, 오 안내자, 와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소서!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 주소서! 너희는 지금 합류시대에 있다. 아버지는 황금시대를 세우고 있다. 지금은 철시대이며,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황금시대에는 극소수의 신인들뿐이었으니, 파멸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또 바로 너희들의 앞에 와 있다. 그때에 관해서는, 과학의 교만을 가진 자들, 이라고 기억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각으로 참으로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한다. 그것은 야다바들의 사회다. 그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어야 한다. 이제 황금시대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너희가 새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순수해져야 한다. 이 불순한 세계는 틀림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설명한다. 너희의 아이들 등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 아무도 너희의 상속자가 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갔

고, 단지 짧은 시간만 남았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계산내역이 있다. 전에는 너희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젠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초창기에 여기에 있다가 몸을 벗은 자들은 각자가 했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다른 생을 취했다. 일부는 여기에도 왔을 것이다. 그 영혼이 여기서 갔던 누군가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모에게 자기가 그곳(센터)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파멸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너희들은 또 전쟁을 위한 준비도 역시 볼 수 있다. 그들 수입의 절반이 전쟁 무기 등에 사용된다. 그들이 어떤 유형의 비행기들 등을 만드느니 그저 좀 보아라. 사람들은 “집에 앉아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 병원들 등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드라마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신호들을 받는 것과도 같다. 그것 역시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병들어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모든 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마가 갔고, 라반도 갔다.” 요가하며 머물러 있으면서 수명을 늘리는 자들은 틀림없이 수명이 더 길어질 것이다. 그들은 제 스스로 행복해하며 몸을 벗을 텐데, 그것은 마치 행복하게 몸을 벗고 브람 원소로 가는 브람 기아니들의 예와 같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브람 원소로 가지도 않고, 그들의 죄가 잘려나가지도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여기서 환생한다. 너희 죄를 잘라버리는 길을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나 하나만 기억하여라. 다른 누구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심지어 락쉬미나 나라얀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이 노력을 함으로써 너희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천국이 세워지고 있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공부하고 있다. 계속되는 그들의 왕조는 합류시대인 지금 이때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지각에 정확하게 자리잡을 방식으로 강의해야 한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신의 공동체이며,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인 형제자매들이다. 영혼인 우리들 모두가 형제들이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아버지가 설명한다. 정욕의 불길이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러나 일단 너희가 추락하면, 너희가 벌여놓은 소득을 전부 다 잃으리라는 두려움이 있다. 만일 너희가 정욕에 패배당한다면, 너희의 지위는 파괴될 것이다. 소득은 참으로 엄청나다. 사람들은 수백만을 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파괴되리라는 그들은 모른다. 폭탄들을 제조하는 자들은 이 세계가 파괴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고취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그것들을 만든다고 믿는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지식을 너희 내면에서 갈아라, 즉 지식의 대양을 휘저어라. 너희들끼리 지식에 관해 논의하고 나서 남들에게 설명해라. 게으름을 버려라.
2. 영혼의식이 되어 크나큰 열의로 아버지를 기억해라. 빈 조개껍데기 같던 너희가 다이아몬드처럼 되려고 아버지에게 왔다는 도취감 안에 늘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다.

축 복: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가 되어,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낯은 산스카르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머물러라.

낯은 산스카르들로 인해 봉사와 관계, 연결에 장애가 생긴다. 산스카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당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끌어당김이라도 있을 때는 무관심이 있을 수 없다. 산스카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때가 되면 그것이 자손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무한한 무관심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낯은 산스카르들, 관계들, 물질적인 소유물들의 공격에서 해방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게 머물 것이다.

슬로건: 마야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되고, 너희들 서로의 관계에서는 겸손해져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